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 관계자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전 장관의 누적 기부액은 230만 원이다.

남원시 송동면 출신인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헬스케어팀에 합류해 의료·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장관은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며, 기부금이 고향에서 꿈을 키워나갈 청소년과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권 전 장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온정에 감사를 전하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권덕철 전 장관



남원시 노인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남원시보건소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노인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해 고령층 생명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생활지원사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위기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신호 인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방법을 배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063-625-4122) 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9 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돈협회 정읍지부, 지역인재 장학금 500만원 기탁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안용화)는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지부는 1989년 창립 이후 지역 축산인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누적 26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부 소속 70여 명 회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진념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2025년 자조모임 교류여행 실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최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자조모임 참여자 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체 자조모임 교류여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집단 교류 활동을 통한 문화 공동체 형성, 여행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여행지는 충청북도 충주 활곡동굴로, 서울·경기·경상도·강원도 등과 달리 평소 방문 기회가 적은 충청도를 목적으로 선정됐다.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시원한 동굴 탐사와 보트 체험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성 기자

무주를 밝히는 힘, ‘나는 반디!’

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200여개 단체 1000여명 · 행사 지원 · 봉사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7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안전과 친절 등 역량 강화 교육도 받았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무주와 반딧불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성공으로 이끌겠다”라고 다짐했다.

이강우 이사장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 1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 나아가 무주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봉사자들이 축제 현장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원봉사자들은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축제 현장에서 청소년과 안내, 불꽃놀이 안전 통제, 최북미술관 특별전 지원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전문 봉사단(썩뚱·서금요법·귀반사·풍산아트·페이스메이킹)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며 무주와 축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개최되는 29회 축제가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를 기반으로 보다 성숙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자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안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주=전문성기자



전은, 군산 한아람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종일)은 군산시 지곡동 소재 한아람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5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소한 한아람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위치한 30년 된 주택건물이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마철 누수와 겨울철 결로현상이 심해 벽지교체가 시급하고, 아동들을 위한 학습기자재가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센터 전반에 도배를 새롭게 하고 개인사물함을 설치해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봄에 맞지 않아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 시마다 부족했던 책상과 의자를 지원해 아동들의 불편했던 학습 환경을 개선한다.

오픈식에는 군산시 김현식 복지교육국장,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 한아람지역아동센터 송영자 센터장,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이해운 수송동지점장, 이송훈 군산시청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죽향동, 취약계층 2가구에 에어컨 설치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1일 1가구 소용행정, 폭염대비 취약계층 집중 돌봄 기간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2가구를 발굴해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번 지원은 임정숙 동장의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펴 발굴하게 되었으며, 지원 대상자는 “동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어 남은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도동동, 와이에스전력에 착한가게 환관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와이에스전력(대표 명호)을 ‘착한가게’ 49호점으로 선정하고 환관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1일 1가구 소용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하나로 착한가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의미하고 있다.

김명호 대표는 “착은 실천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보건소, 2025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드서클이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의 심볼로,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혈관 관리를 위해 자기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건강 수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레드서클 캠페인과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걷기 챌린지는 9월 1일부터 28일 까지 28일간 시 관내에서 16만보(1일 10,000보 제한) 걷기를 달성하면 된다. 챌린지 참여는 김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시 보건소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챌린지 달성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니혼대 학생들, 전주서 우정 그리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일본 니혼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함께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평화의교의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공공의교역량강화대학 사업단(사업책임 신보람 교수·국제학부)은 지난 23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한일 대학생 공감의교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전북대 국제학부와 국제융복합연구소, 한국과학문화학연구소 K-학술혁신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교류에는 양국 학부생 4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평화’와 ‘공공의교’의 가치를 체험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프로그램은 JB문화공간에서 열린 문만용 전북대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이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다. 이어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린 부채 공예 체험은 교류의 백미였다. 학생들은 한일 양국의 상징과 바람을 담아 부



채를 꾸미고 작품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과 만찬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우정을 다졌다.

신보람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도하는 공공의교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농협 전북본부·익산시지부, 한병도 의원과 ‘농심천심 간담회’

농협 전북본부·익산시지부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익산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함께 ‘농심천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익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병도 의원 △전북농협 이창환 총괄본부장 △한농협순해보협 김영일 부사장 △익산시지부 진현욱 지부장 △익산지역 조합장 10명 등이 참석하여, 농·축협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주요 내용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사업 확장△논공 재배 확대에 따른 선별장 시설 확충△농산물 가공 및 식품화 시대에 대비한 농·축협 현장 환경 개선 지원 등이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익산은 농업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 농·축협 현장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실익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함께 참관하여, 국가 주요 정책 결정과정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직자 대상 AI 실무교육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3층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구직자 AI 활용 실무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질적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초빙교수인 이윤선 교수가 맡아 AI 기본 사용법 및 실무 적용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2시간)·실습(2시간) 총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맞춤형 면접 질문 준비 등 실질적인 구직 과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배우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AI 기술은 이제 구직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을 통해 구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